

K김 수출 2030년까지 7억 달러 달성 총력

종자 생산·가공·마케팅 등 전주기 4대 추진전략 수립

진도에 수산종자센터 조성...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도

전남도가 김 산업의 전주기 혁신을 통해 2030년까지 김 수출 7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종합 확대 전략을 내놓았다. 고 품질 종자 개발부터 생산·가공·마케팅·수출까지 산업 구조 전반을 개편해 세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은 △신품종 개발·보급 △친환경·고품질 물김 생산 기반 확충 △가공·유통 인프라 현대화 △수출기업 유치·마케팅 강화 등 4대 전략과 2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2030년까지 4235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전남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김 신품종을 지속 개발해 2030년까지 4종을 보급하고, 육상재배 및 스마트 종자배양 시설을 확대해 안정적 종자 공급 체계를 갖춘다. 진도에 조성할 '지역 맞춤형 수산 종자 실용화센터'는 고수온 등 이상 해양

환경에 대응한 종자 연구와 현장 기술 지원의 핵심 시설이 된다.

물김 생산 단계에서는 친환경 인증 직불제, 신규 활성처리제 보급, 육상양식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 수급 기반을 확보하고 미래 양식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가공·유통 단계에서는 노후 마른김 건조기 교체, 세척수 공동처리시설 확충, AI 기반 품질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등을 추진해 위생·품질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더불어 국제 마른김 거래소와 물류단지를 구축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글로벌 유통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기반 구축도 속도를 낸다. 국립 김

산업진흥원 설립, '케이김(K-GIM) 국제 수출단지' 조성, 수출 투자기업 유치 등을 통해 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케이김 국제박람회 개최, 프리미엄 브랜드 개발,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 등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도 본격화한다.

손영근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비 5억원이 2026년 국비에 반영되면서 전남 김 산업의 기반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2024년 3억6000만달러 규모의 김 수출을 2030년 7억달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 도지사, 완도 미역 피해 양식장 현장 점검

피해 어업인 위로·의견 청취

곰피·다시마 등 대체품종 지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4일 완도군 약산면 독암어촌계 미역 피해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로했다.

현장에서는 미역 양식 초기 단계에서 미역 줄기와 잎이 떨어져 나가는 '엽체 탈락' 피해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

완도군 12개 읍·면에서는 11월 중순 이후 미역 엽체 탈락과 고사 피해로 2931어가, 17만3029줄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완도군 전체 미역 시설량의 약 59%에 해당한다.

피해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어업인들은 분양성 이후 수온 정체와 청물 발생, 영양염 부족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미역 채도 적정 수온이 20도 이하, 분양성 적정 수온이 18도인 점을 고려하면, 10월 초·중순 수온이 22~23도까지 오른 것이 생육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영록 도지사는 피해 조사를 도 차원에서 일괄 추진하고, 이번 피해가 재대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4일 완도군 약산면 독암리에서 완도 미역 양식장 피해 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인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를 거쳐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완도군은 전남 전체 미역 양식장 면적의 약 63%를 차지하는 주산지로, 생산 미역의 약 70%가 전북 양식용 먹이로 활용되고 있어 이번 피해가 전북 먹이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남도는 전북 양식어가의 먹이 수급 안정을 위해 곰피와 다시마 종자 대체 임식, 생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동성에 대응해 현장 예찰과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김영록 지사는 "미역 양식 초기 단계에

서 발생한 이번 피해로 어업 현장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북 양식 먹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양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온도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 '척척'

올해 아파트 54곳 상급·인증현판
16년간 온실가스 3만1438t 감축

광주시는 온실가스 감축 생활 실천 사업인 '광주온도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온도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은 '2045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사업이다.

광주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0곳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

절약, 음식물 쓰레기减量, 녹색 주거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실천활동을 펼쳤다.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 사업으로 시작돼 올해까지 총 836개 아파트가 참여했으며, 그동안 온실가스 약 3만1438tCO₂ eq (이산화탄소 환산톤)을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약 476만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시는 올해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단지는 총 54곳이다.

대상은 광주하남주공1단지(500세대 이상)와 수완장지유류면시야5단지(500세대 이하)가 반았으며, 이들 단지에는 각각 1200만원의 상급과 현판이 수여됐다.

또 최우수상 4곳(각 700만원), 우수상 8곳(각 500만원), 장려상 16곳(각 200만원), 노력상 24곳(각100만원)이

선정돼 총 1억4800만원의 상급과 현판 등이 지급됐다.

나병준 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2045 광주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에도 '광주온도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 사업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 여순사건 실무위 조사·심의 목표 초과

전남도가 여순사건 유족을 대상으로 '2025 여순사건 주요사업 추진 성과 공유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핵심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여순사건 실무위 조사·심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누적된 신고 사건 처리에 실질적 속도를 낸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공유회에서는 유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제도 개선 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성과가 공유됐다.

전남도는 올해 △실무위 조사·심의 목표 초과 달성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제77주기 합동추념식 개최 △유족 생활보조비 확대 △평화문화학생 공모 추진 △2

기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 시범사업 국비 확보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전남도는 심의·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인력을 집중 운영하고 일정 관리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총 7493건을 처리해 전체 신고 1만 879건 중 약 69%를 완료했다.

이는 올해 목표였던 1·2차 신고분 7465건 심의 완료 계획을 이미 넘긴 수준으로, 전남도는 중앙위원회와의 협력 강화로 향후 결정 과정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북극항로 시대...여수·광양·목포항 전략 모색

전남도가 북극항로시대를 맞아 여수·광양·목포항 등 전남지역 무역항의 발전 전략과 정책을 논의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해양항만활력추진단 토론회가 지난 12일 목포 수광양항만공사,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주요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현덕(순천대 물류학과 교수) 전남도 해양항만활력추진단장은 "북극항로 시대 여수·광양항의 전략적 접근 방안" 발표에서 "여수·광양항은 산업기반, 지리적 이점, 스마트·그린 혁신 잠재력 등을 갖춘 북극항로 특화항만으로서 전략적 포지셔

닝, 기술 혁신, 러시아·북유럽 항만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태 국토연구원 박사는 "여수·광양·목포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물류 중심 기능을 유지하되, 항만배후단지를 산업·주거·업무·연구개발 기능을 결합한 복합단지로 고도화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화영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는 "전남에 위치한 오픈SI 데이터센터와 국가AI 컴퓨팅센터 역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이 필수고, 해상풍력 발전 수요도 늘어 화전, 스마트·그린 혁신 잠재력 등을 갖춘 원산단의 해상풍력 배후단지와 전용부두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붕괴사고 '광주 대표도서관' 사업 들여다보니...

7차례 설계변경...사업기간도 9년으로

자재비 상승·시공사 부도 겹쳐

광주시, 구조변경 여부 확인 중

구조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조성사업은 기초공정 지연과 예산 부족, 시공사 부도로 수차례 계약·설계변경이 진행돼 5년 사업이 9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시와 종합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를 활용한 광주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516억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2층의 연면적 1만1000㎡ 규모의 사업이다.

도심 가파시설인 소각장이 시민이 이용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상무소각장은 2001년 가동 이후 2016년 12월 폐쇄됐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으로 계획됐지만 예산 부족과 시공사 부도 등으로 완공 기간이 내년 5월로 늦춰지면서 공사 기간도 총 9년으로 늘었다.

사업비는 당초 392억(국비 157억원·시비 235억원)에서 516억6300만원(국비156억8000만원·시비359억83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9년 11월 국제공모를 통해 세르비아 브리니슬라프 레디의 작품을 선정하고 예산 17억3000만원을 투입해 본격 설계를 추진했다.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은 실시설계까지 순조롭게 진행돼 계획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이 빚어졌다.

작품 공모 당선자 세르비아의 레디가 설계업체와 구체적인 설계도를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을 하지 못하면서 미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는 사이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등은 상승해 사업비는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경제성 부족 문제로 제기되면서 공사 기간이 2022년 9월에서 2024년 5월로 1차 수정됐다.

또 코로나19 해제 이후에도 불황이 지속되면서 공사기간은 다시 내년 1월로 2차 변경됐으며 2025년에는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완공기간이 2026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틀째인 12일 광주 서구 지평동 사고 현장에 대형 크레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년 5월로 3번째 미뤄졌다.

당초 5년 계획이 9년으로 늘어나면서 설계·계약변경도 7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대표도서관 가설을타리를 변경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견된 누락사항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2022년 9월에 있었으며 2차는 장애물 없는 공사현장 인증(BF)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됐다.

2024년 4월에는 상무소각장 연계 통합 계획이 반영됐으며 평판제하시한 적용 및 기초 변경(2025년 3월), 철근이음 공법 변경(2025년 4월) 등 설계·계약 사항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마지막으로 설계가 변경된 지난 4월 10일 상무소각장 연계 건축공사 및 시스템 비계 설치 등이 검토됐다. 기동 중심선으로부터 600mm가량 노출된 데크플레이트의 외단부 스토퍼, 램프 단차 부위를 시공할 때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하중·측압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이날 기준 공정률이 70%인 상황에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은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경찰과 광주지방공용노동청이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서 중단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길이가 100m에서 120m 늘어나는 등의 구조가 바뀌는 설계가 변경됐으며 2025년에는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완공기간이 2026

양동민 기자 yang00@

강기정·문인·김병내, 출판기념회 줄줄이 연기

도서관 공사장 붕괴사고 여파...“사고 수급 최우선”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광주지역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여파로 출판기념회를 줄줄이 연기했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 시장은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기로 한 출판기념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 처음보다 더 극적인 두 번째 등장'이라는 주제의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내부 조직을 재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그는 특히 이번 책을 통해 "광주의 첫 번째 등장이 민주도시였다면 두 번째 등장은 부강한 도시로의 도약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에 나설 방침이었으며, 광주시 발주 사업장의 붕괴 사고로 사고 수습에 전념하기로 했다.

또 강 시장은 대표도서관 건설 현장 붕괴사고 수습과 매몰자 구조를 위해 출판기념회를 연기한 데 이어 광주시의회를 해 마지막 본회의에도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했다. 붕괴 사고로 인한 사고 수급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문인 북구청장도 당초 오는 21일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고 여파로 무기한 연기했다.

당분간 사고 수습에 힘을 기울이고, 사

고가 수습되는 대로 북콘서트 개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병내 남구청장 역시 오는 20일 광주대에서 개최하기로 한 출판기념회를 연기했다.

김 청장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로 광주시 행정력이 동원되는 상황에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고 수습에 전념하는데 동참하고 남구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출판기념회 날짜를 내년 1월 17일(광주대학교)로 조정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도 오는 20일 광주교대 평화문화관에서 열 예정이었던 출판기념회를 연기했다. 신 의장은 광주시와 함께 사고 수습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 상무지구 내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육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상무지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1만200㎡)에 연면적 1만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392억원(국비 157억·시비 235억)이었으나, 자재값 상승과 공기 지연 등으로 516억원(국비 157억, 시비359억)으로 늘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